

디지털 음원 시장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동향

김진호*

1. 개요

닥터 드레와 지미아이오반이 공동 창업하여 약 11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음원 스트리밍 업체 ‘비츠뮤직’과 고급 헤드폰 시장 점유율 27%의 ‘비츠일렉트로닉’을 애플이 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2014년에 발표하면서 음원 스트리밍 시장이 뜨거워졌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미국 음원서비스업체인 ‘슬래커’와 손잡고 1,300만여 곡을 200개 채널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밀크뮤직’을 2014년 10월 선보인 후, 서비스 첫 주에만 123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음반수익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디지털 음원의 비중과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LTE와 같은 네트워크망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음원시장이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 국가의 디지털 음원시장과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을 간략하게 개관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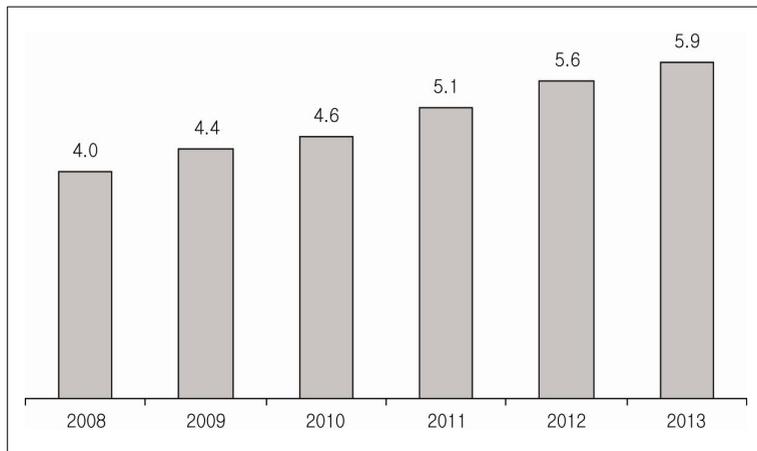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연구원, (043)531-4397, jhkim@kisd.re.kr

2. 국내외 디지털 음원 시장 현황

세계 음반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세계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 수익은 59억 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했으며, 전체 음반 수익 중 39%를 차지하였다(IFPI, 2014, 6). 디지털 음원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는 부분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그림 2]와 같이 2008년에는 디지털 음원 수익 중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이 6%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19%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2013년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는 2,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스트리밍으로 인한 수익이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3%나 증가한 수치였다(IFPI, 201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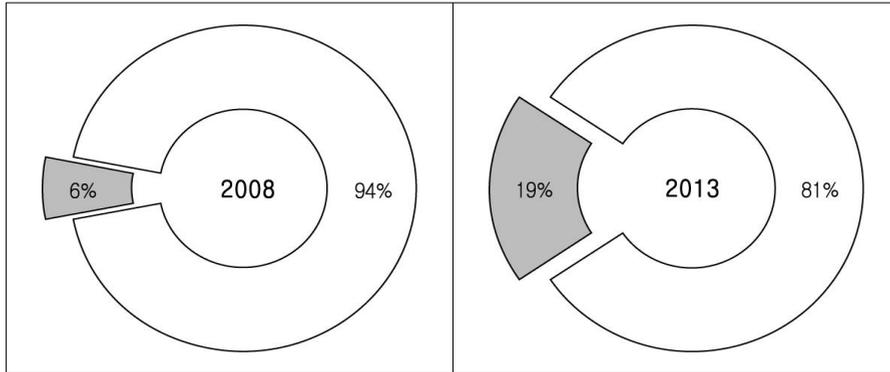
향후 디지털 음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 및 LTE 네트워크 망의 확대에 의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세계적으로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글로벌 디지털 음원 시장 수익 추세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FPI(2014, 6)

[그림 2] 디지털 음원 수익 중 스트리밍 서비스 비중



자료: IFPI(2014. 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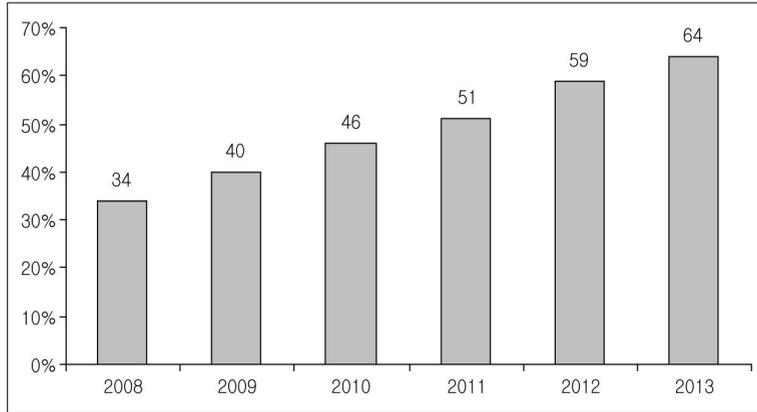
(1) 미국

미국 음반 시장이 2008년 88억 달러에서 2013년 70억 달러까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디지털 음원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수익에서 디지털 음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2008년 34% 수준이었던 수익 비중이 2013년에는 64%까지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증가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전체 음원 수익 중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수익의 비중은 [그림 4]에서처럼 한 자릿수 이내였다. 그러나 2012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5%로 증가한 후 2013년에는 21%까지 증가하였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인한 수익 증가와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80만 명 수준이었던 가입자가 2013년에는 약 3배 이상 많은 610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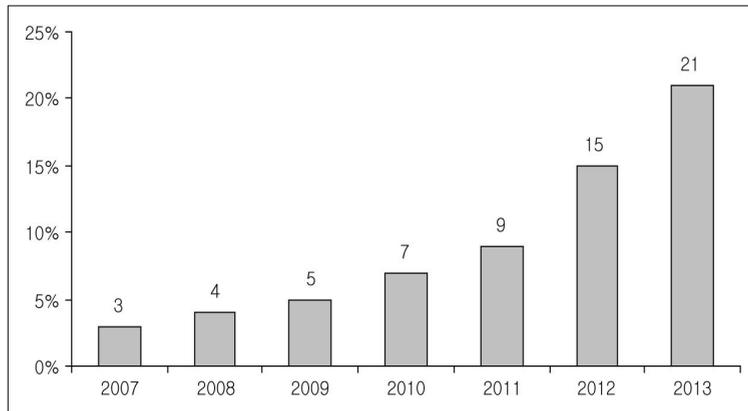
여전히 미국 내 음반 시장에서 CD 등과 같은 음반판매와 디지털 다운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 35%와 40%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음원의 수익은 감소 혹은 증가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요한 음원 소비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림 3] 미국 음반 수익 중 디지털 음원 수익 비중



자료: Friedlander(2013. 2)

[그림 4] 미국 음반 수익 중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비중



자료: Friedlander(2013. 1)

(2) 스웨덴

스웨덴 음악 시장의 수익이 2008년 144.8백만 달러에서 2013년 194.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수익 중 디지털 음원으로 인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8%에서 2013년 70%까지 증가했다. 게다가 디지털 음원 수익의 90%가 음원 스트리밍 서

비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IFPI, 2014, 34).

스웨덴 음원 시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증가원인은 저작권법 강화와 이에 따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활성화였다. 특히 스웨덴 이동통신시장에서 약 4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elia와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인 Spotify가 제휴함으로써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었다. Telia는 가입자에게 3개월 간 무료로 Spotify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그 후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Spotify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출시하였다.

2015년 현재 <표 1>과 같이 Telia의 Spotify Free 요금제를 통해 6개월 동안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약없이 이용 가능하며, 그 후는 매일 최대 10시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경우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Spotify Family 요금제도 출시하였다.

따라서 스웨덴 음반 시장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음원 스트리밍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스웨덴 Telia의 spotify 요금제

요금명	요금	가능 회선수	특징
Spotify Free	무료	1회선	6개월 간 무제한 이용가능
Spotify Premium	99 SEK/월	1회선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서 이용가능
Spotify Family	199 SEK/월	5회선	동일한 요금제로 5회선 이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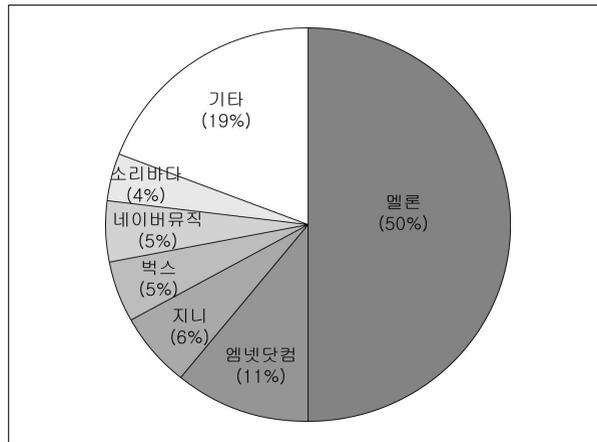
자료: Telia 홈페이지(<http://www.telia.se/privat/telefoni/tjanster>)

(3) 한국

국내 음반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2012년 기준 3조 9,949억 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16.2%씩 증가했고, 이 중 온라인 음악 유통업 매출액은 9,525억 원으로 같은 기간 23.7%나 증가했다(SERI, 2013, 189). 음반시장 전체 규모와 온라인 음원시장의 증가 원인은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급이었다.

IFPI(2014, 46)에 따르면 국내에서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뮤직 등 17개나 존재했으며,⁵⁾ 주요 음원사이트인 멜론과 지니의 경우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 방문자 수만 각각 6천 338만 명과 2천 471만 명이 었다. [그림 5]와 같이 주요 사이트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멜론이 50%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그 뒤에 엠넷닷컴 11%, 지니가 6%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림 5]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 스포츠서울(<http://www.sportsseoul.com/?c=v&m=n&i=82926>)

3. 결 어

전통적인 음반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MP3플레이어의 등장과 2000년 대 후반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로 인해 디지털에 기반한 음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도 2013년 전세계 음반시장 수익 중 디지털 음원으로 인한 수익이 39%나 차지했으며,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LTE 네트워크 망

5) 국내 디지털 음원 제공사이트는 벅스, 싸이월드 BGM, 다음뮤직, Deezer, Genie, Groovers.kr, Helume, 현대카드뮤직, 멜론, 엠넷, Monkey3, 엠피온, MUV, 네이버뮤직, 올레뮤직, 소리바다, 유튜브와 같이 총 17개였다(IFPI, 2014, 46).

의 확대에 의해 기존 다운로드 위주의 음원소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음원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아이튠즈와 판도라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기존 멜론과 지니 같은 음원사이트 이외에도 2014년 10월 삼성전자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밀크’의 개시로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스트리밍 형태의 다양한 음원서비스가 출시되면서 디지털 음원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세계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2009~2018).

Friedlander (2013). News and Notes on 2013 RIAA Music Industry Shipment and Revenue Statistics.

IFPI (2014). IFPI Digital Music Report 2014.

SERI (2013). 음악산업 매출액 통계('10~'12)